

식물검역소의 업무와 곤충분류

이홍식

국립식물검역소 위험평가과

국립식물검역소는 식물류 (살아있는 식물 외에 그 가공품도 포함)의 수입과 수출 시 병해충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여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폐기, 반송, 소독 등의 검역적 조치를 취하는 국경검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는 수입 식물류를 통해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식물류가 식물검역소의 검역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검역과정 중에서 발견되는 각종 생물이 검역적으로 해로운 병해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해충에 대한 동정 능력이 필수적이다.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생물이 발견될 경우 바로 검역적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국내로 유입될 시 국내 식물류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을 차단하게 된다. 이때 발견되는 생물의 종류를 보게 되면 해충(곤충, 응애, 선충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이중에서도 곤충류가 가장 많다. 저장물에서 자주 발견되는 해충은 일선에 경험 많은 검역관들이 쉽게 식별하여 검역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생식물이나 목재류에서 검출되는 곤충 중에는 다른 국가 특히,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호주 등 다른 생물지리권에서 발생하며, 그 지역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가 아닐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곤충의 분류학적 지식을 많이 요구하게 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역소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의 병해충 동정 전문가들을 병해충 컨설팅 팀에 포함시켜 해당 분류군에 대한 동정 수요가 발생 시 해당 생물의 동정을 의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중요 분류군 별로 모든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각 분류군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으며 (대개 일부 5개과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 년에 5건 이내임), 연구소가 아닌 행정집행 기관으로서 연구를 위한 인력의 확충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역관 중에서 대학원 재학 중 또는 업무 중에 전문반 교육 및 연수를 통하여 검역적으로 중요한 그룹에 대한 동정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자체 컨설팅 팀에 포함시켜 계속 동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아울러 신규직원 채용 시, 일괄적으로 신규직원을 뽑던 제도를 식물병, LMO검사, 해충 분야로 나누어 채용하고 있으며, 2005년 4월의 신규직원 채용 시 이에 따라 해충 분야의 6명을 채용하였다. 그중 곤충분류를 전공한 사람 중에 2인이 새로 검역소 직원이며, 앞으로도 분류연구를 한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국내의 곤충분류 연구하시는 분들과 연계하여, 곤충분류 연구에 참여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검역 과정 중에 발견된 곤충 중 분류동정이 필요한 경우 국내 분류군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고자 한다.